

어린이만 빼고 다 변해야 한다

조월례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

서로 다른 소리

방송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책을 읽자는 캠페인을 펼치는 덕분에 지하철에서도 어린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이 프로에서 선정된 도서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운동도 벌이고 있으니 어린이책은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곳곳의 어린이 독서운동단체들이 좋은 어린이책읽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 덕분인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어린이책 출판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0퍼센트가량 성장했다는 자료를 내놓는다. 같은 시기 다른 영역은 거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책 출판에 종사하는 이들은 휘파람이 절로 나올 일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린이책 종사자들은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비명이다. 그것이 그저 지나가는 엄살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는 부모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게 들려오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인터넷에 매달려 책이 재미없다고 아우성이다. 편집자들은 원고난에 허덕인다. 한마디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것 많은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나날이 성장하는데 아이들 책, 그 중에서도 어린이책의 꽃인 픽션 부분은 거의 건질 것이 없다고 이구동성 입을 모은다. 이렇게 문학 작품에 대한 기근 현상이 일다보니 《나비를 잡는 아버지》, 《만년셔츠》, 《겨레 어린이 문학 선집》, 《왕치와 소새와 개미》, 《황소 아저씨》, 《싸우는 아이》, 《옹달샘 이야기》, 《칠칠단의 비밀》, 《떡배단배》 등 이전에 나왔다가 절판되었거나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책들을 재출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책들은 요즘의 작가들이 따라갈 수 없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의 흐름을 꿰뚫은 작가의 통찰력이 빚어내는 작품성이다. 당대 아이들의 삶에 바짝 기대어 그들의 삶과 사회를 치열하게 그려냈고, 그것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의 명망있는 그림 작가들이 결합하여 이 시대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독자의 욕구, 기획의 한계

하지만 시대적 특성상 강조되는 계몽성은 접어두고라도 주제나 표현면에서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감성과 부딪치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물론 이런 책들이 '명성왕후'나 '김두한', '여인열전' 등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내용을 재빠르게 어린이용으로 출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책'의 반열에 올라 마땅하다. 하지만 독자들은 요구한다.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격조 있게 표현한 작품과 만나면서 이 시대의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를 꿈꾸고 싶다고 말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런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을 만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느낌표에 기대보기도 하고, 상업논리에 기대보지만 분명 그것이 우리 어린이책 출판이 가야 할 길은 아니다.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성탄절에 온 천사 성탄이》,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 《이슈 이야기》, 《마술사 오은영의 마술학교》,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무서운 게 딱 좋아》, 《화산에서 살아남기》, 《호

두끼 인형》등 전국 17개 서점에서 발표한 4월의 어린이책 베스트셀러는 짜잡아서 ‘문제’라고 하면 억울하다 항변할 목소리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이 시대 아이들의 간식용은 될지언정 격조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아 10년 20년 살아남을 책은 아니다. 출판계 종사자들이라면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겠지만 그게 그렇게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린이의 꿈에 다가가기

어린이책 종사자들은 너나없이 더 없이 영악하고 똑똑한 아이들, 어른들 못지않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아이들 곁으로 좀더 바짝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들의 절박한 문제, 그들의 언어, 그들의 꿈을 읽어내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문학 작가들은 평생에 한 권을 쓰더라도 자신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절박한 이야기,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을 써야 할 것이다. 시대를 꿰뚫는 작가의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문학에 대한 두터운 신념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작가로서의 신념을 가지고 말이다. 해마다 볼로냐에 가서 싹쓸이 해오는 관행에 매달리기 보다 우리 아이들의 감성과 현실에 맞는 책을 만들기 위한 편집자들의 철학이 요구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평범한 진리는 출판계에 가정 적절하게 적용되는 말이다.

출판의 철학과 사회적 장치

어린이책을 팔아서 남는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출판 경영자들의 철학이 요구된다. 출판은 문화의 꽃이다. 어린이 출판은 어린이 문화의 꽃이다. 아이들의 문화는 인터넷과 컴퓨터로 대변되고, 빠르게 유입되어 곧바로 소비문화로 이어지는 서구문화를 뛰어넘어 아이들의 문화를 되살려내기 위한 출판 경영자들의 힘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책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고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출판계로 유입되어 어린이책 출판문화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린이책과 관련 있는 이들을 격려하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작가나 편집자에게 명망성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 어린이가 뽑은 올해의 책, 가장 우수한 작가에게 주는 상, 편집자에게 주는 상 같은 것은 어떨까.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인회의 같은 곳에서 독서운동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자고 나면 사라지는 어린이 전문서점을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린이 전문서점의 역할은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어린이책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어린이 출판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을 쓴 조월레 씨는 1979년 결성된 서울양서협동조합 소모임에서 어린이 분과 활동을 시작으로 지금은 어린이도서연구회를 비롯해 전국 ‘동화읽는어른 모임’ 등에서 어린이책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접 엮고 쓴 책으로 《재미있는 동화 읽기 어떻게 지도 할까》(돌베개, 1991), 《바람 도깨비》(우리교육, 1994), 《토끼 불알을 만진 노루》(우리교육, 1994), 《지구라는 보자기》(오늘, 1996), 《순희 사는 동네》(오늘, 1996) 등이 있습니다.